

화제 **인도인의 길** 존·M·롤러 지음

세계화의 이념속에는 발전 할리 무한 경쟁 생존이라는 용어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때 동양의 지혜를 대표하는 불교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인도인의 길〉은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19~20세기 인도에 유입된 합리성과 개

서구이념 대응 인도사상가들 답변

안주의 인본주의라는 서구적인 이념에 인도의 사상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답변의 핵심은 건디가 그 기초를 부여했던 다르미 모델이다.

다르미 모델은 인간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육

의상 김두진 지음

의상의 화엄사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교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역사적 입장에서 도 분석되었는데 생애와 왕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편이다.

〈의상 -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에서는 의상의 사상과

수행자 자세와 전제정치 관계 규명

신라 중대의 사회 내지 전제 정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의상과 전제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왕실의 전제정치와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문무왕에게 간언하여 성찰을 역사화하게 했다'는 〈삼국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이온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미라리빠의 십만송	이정섭	시공사
2	천수경	무비	불일
3	솔통대언	김대현	유유문화사
4	마음로 간 미륵	주강현	대원정사
5	나를 보게 하소서	현장	민족사
6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7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외법	시공사
8	인도기행	법정	샘터사
9	불교의 만남	강건기	불지사
10	한글 아함경	고익진	동국대출판부

구입문의: (02)737-0695



사찰안에서 잇따라 출간

통도사·해인사·송광사 등 30여종 나와 문화재 위주...사상·신행 특징 담았으면

어디든 사찰이 있다. 그곳은 부처가 되려는 이들의 수행도량이며, 민중의 애환과 함께 명백한 면면이 이어온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속진에 허덕이는 중생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한민족의 마음 한 구석에는 반드시 사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찰안내서가 줄을 이어 출간되고 있다. 지난 7년 일지사에서 '한국의 사찰' 시리즈 첫책으로 〈불국사〉가 나온 이후 본격화된 이들 책은 대원정사의 '빛깔있는 책'으로 이어져 산뜻한 칼라 사진과 알찬 내용을 담은 품위있는 출판물로 서가를 빛내고 있다. 특히 일지사는 〈북한의 사찰〉과 〈신라의 폐사 1·2〉를 펴내 불교문화의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사찰안내서

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불국사 범주사 등 30여종에 이른다. 이들 책은 대부분 사찰의 연혁과 역사, 대웅전 극락전 등의 당우와 각종 유물 유적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용주사 선암사 직지사 등에서 출판사에 의뢰해 자기 사찰의 역사와 유물 유적, 그곳에 주석하며 범행을 이었던 고승들의 행적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일지사와 대원정사의 사찰 시리즈가 사찰의 문화·예술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사찰에서 발행한 책들은 해당사찰의 사격(寺格)과 전통을 알리고 신앙생활을 길잡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앙적 의미를 강조한 특징을 보여준다.

〈용주사〉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부친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배경이 전해져오는 '효심의 본향'로

새로나온 책

▲한국문화와 불교(목정배 지음)=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의 흐름을 총설·사상과 종교·신앙·민속·불교미술·인물·불교문화사로 나누어 그 개론을 살피고 각 문화적 요소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불교가 단순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한민족 문화의 큰 흐름을 이룬 민족의 종교임을 밝혔다.

〈불교시대사, 6천5백원〉

▲진실의 길(이창우 역음)=종교의 근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입각해 불교의 교(敎)와 선(禪)의 근본을 밝히고,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미움과 나' '연기론' '우주

관' 등 모두 23장으로 구성, 대원스님의 법문과 부처님의 비유설법, 기독교의 성경을 인용해 설명했다.

〈경서원, 1만2천원〉

▲종교에서 철학으로(큰따옴표 지음)=종교와 철학 사이에

장다고 주장한다. 남경의 옮김(이화여대 출판부, 9천원)

▲무소의 뿔처럼 상(김재영 지음)=불자수행교본 시리즈의 2단계 성인종교과정으로,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밝혔다. 자학자습 하거

는 거의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다는 서구 사유의 연원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철학은 종교로부터 신 영혼 운명 등의 개념을 전수받아 자신의 발전방향을 결

출판 단신

책 고를 때 '내용' 중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구입할 때 책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와 날개'가 4월호 특집으로 전국의 성인 남녀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 스타일 조사에 따르면, 책구입시 일차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책의 내용(63.4%)이다. (22.0%) 제목(7.2%) 출판사 이름(5.2%) 순이었다.

'거승 사명당' 등 도서 전시

광복 50주년 기념 '95서울 도서전'이 6일부터 11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 전시에는 '거승(巨僧) 사명당' '합천 해인사지' 등 불교서적이 선보였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붓다차리타

우리 불제자는 여래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부처님같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불제자가 된 사람은 먼저 부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한다.

그분의 인격이나 가르침을 잘 알려면 경이나 율이나 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떤 것을 보이셨나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실로 희유하게 오셔서 거룩하게 사시다가 장엄하게 가신 분이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중에 다시 없는 성인이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더없이 존귀한 분으로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부처님 행적 소상히 정리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기 지침서

먼저 그분의 행적을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전이나 전기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하나, 그것이 완전하게 소상히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처님의 행적을 정확하고 소상히 알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석존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 유명한 마명보살의 〈붓다차리타〉이다. 이것은 일찍이 한문으로 전해진 것이 불소행찬(佛所行讚)이라는 이름으로 담마라스크(414~426)에 의해서 번역되어 알려져서 흔히 알고 있듯이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가지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스승이신 석존을 마음 속에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

계간 '상상' 주관 제1회 상상문학상 수상작

성낙주 장편소설

“붓다 시대를 다룬 세계 최초의 본격문학”

차크라바르틴

‘붓다’와 ‘차크라바르틴’은 같이 민중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이다. 민중을 정신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가 ‘붓다’라면, 고통스런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꿀 현실의 왕이 ‘차크라바르틴’이다.

“차크라바르틴은 불교라는 종교가 막 태동하고 발전하는 시간적·공간적 지점으로 내려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석가족의 성자 고타마 시다르타와 석가족을 멸망시키려는 천축을 통일하려는 비유리 왕의 갈등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면서, 붓다(覺者)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라는 형이상학에 도전하는 진지한 주제와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오늘날 신화와 설화에 대한 우리 문화계의 새로운 관심은 세기말의 삶이 과잉화·부분화 되었다는 반작용인 동시에 삶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적 새물결임을 반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화와 설화가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차크라바르틴’은 분명 눈여겨 보아야 할 뛰어난 소설임에 분명하다.”

‘상상문학상’ 심사평

자신 50년 세월 동안 나는 이 작품을 세 번 씌어 새로 썼다. 최고인 서민도 수백권이 넘는 것이다. 이 소설 속에는 지난 내 생의 열과 불꽃이 녹아들어 있다.

차크라바르틴은 내 몸 이야기의 속세에 빠뜨린 소설이다. 이따금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로 덮고 있는 소설을 근래 본 적이 없다. 이야기의 지대도 알지 못하는 버섯의 나뭇가지 이 소설이랄까 가장 반가운 신화였다. 양귀재(소설가)

차크라바르틴은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다. 우선 우리 정신의 근원인 동양정신을 복원하려는 참뜻이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이야기 사의의 힘은 작품의 장엄함을 배가시켜 준다. 이만희(소설가)

전 2권 각권 6,800원 상권 408원 하권 444원

100년 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시영과 비드 비드 지음 이원희 옮김
 화보 33면 마작지 80·606면 각 12,000원

그런데 알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이 내리 접하게 됐다. 소설처럼 읽히는 재미뿐만 아니라 70여 년 전 우리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학파의 관찰력에 일단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비드(소설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남기로운 분석도 놀라운 것이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정세와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과 국의 정세와 민족생활에 대한 생생하고 세심한 관찰이다. 장영일(작가)

불교 100년 전의 시간 풍류 지면 생활화가 어떤 유리는 이렇게 무척이나 아름답게 반짝이는 30여 년 전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은 나의 무척이나 흥미롭게 배우게 되었다. 이만희(문학평론가, 작가)

신이현 장편소설

숨어있기 좋은 방

삶의 신비, 내이제적 질문으로 가득 찬 소설
 주인공 윤이규. 이 뛰어난 체구의 내면에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갖가지 거짓과 위선을 통렬한 불에 도발한 내이제적 진실이 존재한다.

숨어있기 좋은 방은 이웃사촌의 인생을 주인공 윤이규는 삶의 소박한 소박함을 잘 반영하고 있다. **소설**로 성취를 이루려 하지 않는 젊은 여인의 목숨이 담긴 소설! **동아일보** 이 소설은 우리를 은밀하면서도 두렵게 세계로 유혹하고 있다. 나는 우리 소설에서 보기 드문 반역적 소설을 읽게 되었다는 기쁨을 느낀다. 신형준(문학평론가)

김 5,000원

<p>이문열 사색</p> <p>평생을 걸며 한 번 한 번 내내. 문명에도 같은 책. 김 5,000원</p>	<p>임철우 장편소설</p> <p>그섬에 가고 싶다</p> <p>질박한 웃음과 투명한 눈물. 꿈과 안락함이 전면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김 5,000원</p>	<p>양귀재 장편소설</p> <p>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p> <p>100만 독자를 부르는 성공작. 신화시대부터는 여신상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문명적 텍스트! 김 5,500원</p>	<p>기철도 유교집</p> <p>짧은 여행의 기록</p> <p>말이 살아난 시인의 일기. 편지, 소설, 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의 문예! 김 5,000원</p>	<p>유서호 장편소설</p> <p>지극히 작은 자 하나</p> <p>근소수의 독자들이 읽었지만 그 독자층으로부터는 극찬을 받은 보석같은 소설. 김 5,000원</p>	<p>도서 살림</p> <p>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88-9 인형빌딩 304-305호</p> <p>전화 379-4925 4926 영남부 394 3451 3452 남동부 팩스 379-4724</p>
--	---	---	--	--	--